

## 국가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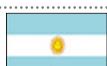
## 미국

## 하루 3개 계란 섭취 실험해보니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마리아 페르난데스 박사가 최근 실시한 실험 결과 계란을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등 혈중 지질(lipid)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의 연구팀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루 계란 3개씩, 또 한 그룹은 계란 3개에 해당하는 대용식품을 3개월 동안 먹게 하고 혈중 지질을 측정했다. 그 결과 계란을 하루 3개씩 먹은 그룹은 이 때문에 실험 전보다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2배 늘었음에도 혈중 총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가 없었다. [연합뉴스]



렛이 만들어져 화제다. 아르헨티나의 지방도시 피구에가 최근 도시건립 128주년을 기념하면서 자이언트 오믈렛을 만들어 주민들과 시식회를 열었다. 도시는 14년 전부터 매년 생일이 돌아오면 대형 오믈렛을 만들어 주민들과 잔치를 벌였다. 올해는 오믈렛이 특히 컸다. 행사날 아침 일찍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공원에는 지름 4.2m짜리 초대형 프라이팬이 설치됐다. 정오부터 시작된 조리에는 80명이 참여했다. 오믈렛의 주재료 계란은 무려 1만 5,000알이 사용됐다. 계란을 깨는 데만 4인으로 구성된 16개 조가 투입됐다. 베이컨 100kg, 식용유 30리터, 파 3kg, 파슬리 4kg, 시불레트 5kg 등이 사용된다. 피구에라는 도시 이름은 마푸체 언어 피우에에서 유래됐다.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도시는 이런 도시명의 취지를 살려간다는 의미로 매년 생일(도시 건립일)을 맞으면 성대한 잔치를 연다. 초대형 오믈렛 만들기, 미스 피구에 선발대회 등 축제가 이어진다. [서울신문]



## 아르헨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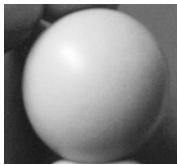
## 사용된 계란만 1만 5,000알…초대형 오믈렛

수 천 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큰 초대형 오믈



## 영국

미스터리, 계란 한 알에 무려 60만원..이유가!



경매가 60만원에 달하는 놀라운 미스터리 계란이 발견돼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영국의 '더 선'은 완벽한 원형의 계란이 발견됐다면서 소식을 전했다. 사진 속 계란을 얼핏 보면 특별한 차이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색깔이나 크기가 흔히 보는 계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바로 형태. 이 계란은 타원 형태를 보이는 계란과 달리 마치 턱구공을 연상시키는 완벽한 원형을 띠고 있다. '더 선'에 의하면 런던에 사는 마크 카메론은 집 근처의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구매했는데, 그 중에서 '미스터리 계란'을 발견했다고. 행운의 남성은 곧바로 이 계란을 세계적인 경매사이트 '이베이'에 올렸고, 현재 가격은 350파운드, 한화로 약 60만원까지 뛰어올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진처럼 원형 모양의 달걀이 나올 확률은 100만분의 1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



## 중국

베이징 요시노야 등 23개 식당 '속성 닭' 봉쇄조사

중국 베이징(北京)시는 요시노야(吉野家) 등 23개 음식점에 대해 '속성 닭'을 봉쇄한 채 조

사용 샘플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베이징시 내에 있는 모든 시장과 슈퍼마켓에 대해 유통되는 모든 육계에 대해 조사를 한 뒤 불합격된 것은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산동(山東)성의 류허(六和)그룹에서 금지약물을 포함해 18개 종류의 항생제를 먹인 육계(肉鷄)를 납품받은 식당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베이징시 동물위생감독소는 요시노야와 베이징알샹(北京二商) 등 23개 음식점에 대해 류허그룹에서 납품받은 육계를 모두 봉쇄한 뒤 600g짜리 샘플을 동물위생감독소 검사센터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신징빠오(新京報)가 보도했다. 류허그룹 등에서 닭을 빨리 키우기 위해 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 호르몬, 텍사메타손을 비롯한 18개 종류의 항생제를 먹였다는 보도에 따라 류허그룹 등이 납품한 육계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머니투데이]



## 파키스탄

닭고기 가격 40% 증가

최근 파키스탄에서 닭고기 가격이 기존보다 30~4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현상은 재고량이 턱없이 부족해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조사결과 닭고기 1kg 당 도소매가격이 110Rs(2USD)였지만 166Rs(3.02USD)로 증가하였고 최종 판매가격도 200Rs(3.64USD)에서 250~260Rs(4.54~4.73USD)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계란도 12개당 110Rs(2USD)에서 130Rs(2.36USD)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ThePoultrySite] 양계